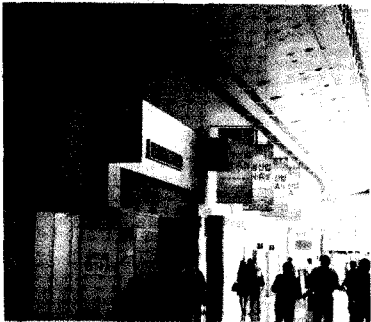




글·사진: 편집부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생명산업! 생명산업의 비전을 제시한 생명산업 D.N.A# 展 성료

◎행사 개요

- 명칭 : 생명산업 D.N.A# 展
- 기간 : 2010. 6. 17(목) ~ 19(토), 10:00~17:00
- 장소 : aT센터 제1전시장 및 세미나실
- 주최 : 농림수산식품부, 미래기획위원회
- 주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후원 : 농촌진흥청, 산림청, SBS, 매일경제, 한국식품연구원, (재)연구소재중앙센터

◎전시 구성

- 주제관(생명 DNA Tree)
 - DNA(Design, Natural Agriculture)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시
 - 생명자원으로부터 응용된 미래 생명산업의 핵심 모습 제시
- 산업 DNA관(생명산업 공감관)
 - 생명산업의 원천인 생명자원으로부터 파생되어 응용산업화 되어 있는 분야별 핵심 기술 및



제품들을 전시·체험

- 유관기업, 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참여
- 체험관(체험·휴게)
 - 관람객이 곤충, 관상동식물 자원 체험과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제시
- 농어촌 희망광장
 - 농어촌 미래상을 제시
 - 저수지, 과수원, 텃밭, 케빈하우스, 꽃밭 등 농어촌 희망 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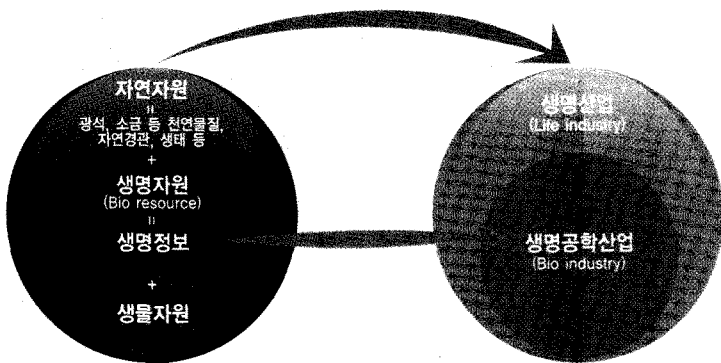
구분	전시내용
생명자원관 (Nature DNA)	생명자원 정보 관리기술 고부가 각종 유전자원 활용 등
미생물관 (Micro DNA)	발효과학 활용 기술(김치, 치즈, 막걸리 등) 미생물제제, 생물농약
식품·의약품 (Food & Drug DNA)	건강기능성 식품, 백신 및 바이오신소재 등
녹색관 (Green DNA)	바이오에너지, 곤충(천적, 꿀벌 등)
신품종관 (Seed DNA)	벼, 식물, 어류, 동물 등 육성 신품종

농업이 미래 생명산업임을 보여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생명산업 D.N.A#展이 지난 17~19일 aT센터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농어업이 먹거리 제공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되었던 것을 동물, 식물, 곤충 등 생명자원을 활용하여 기능성 식품,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미래성장 농산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개막식은 17일 오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이어령 생명산업DNA전 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개막에 앞서 연사로 나선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전 문화부 장관)는 생명과 생명자본주의의 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행사의 핵심인 생명산업(Life Industry)이란 자연자원 그 자체 또는 이를 관리, 활용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부가가치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생명공학산업(Bio Industry)의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사장의 주제관에서는 생명 DNA Tree를 통해 생명산업 D.N.A(Design Nature & Agriculture, 자연과 농업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뜻)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생명자원으로부터 응용된 미래의 핵심 모습을 제시하였고, 생명산업 공감관인 산업 DNA관에는 각 분야별 핵심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로써 91개 유관기관, 단체, 기업, 대학 등이 참석하여 풍성하게 꾸러졌다.

특히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행사장을 찾은 참

관객, 특히 어린이들에게 유익했다는 평가다.

풍산개, 진돗개를 직접 만져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포토존, 곤충생태정원 체험관에서는 벌, 나비 등 곤충과 식물들이 어우러진 생태공원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토종어류자원을 소개하는 전시관 역시 아이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시식행사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벌꿀로 만든 고추장과 화분, 꿀 등을 시식할 수 있는 행사를 하였으며, 관련업체 등에서는 화학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콩식품, 과채음료 등도 소개되어 건강과 식품안전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도 행사기간 내내 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활성화 및 국제협력을 주제로한 학술 행사 및 세미나가 열려 생명산업의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